



“오일장, 추석 대목인데 예전 같지 않네”

생선·과일 등 제수용품 찾는 발길 줄어 한산
차례 지내는 가정 감소… 간소화 추세도 한몫
옥돔 등 일부 제수용품은 저렴한 수입산 선호

“집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는 이들이 점점 줄고, 지내더라도 직계가 족만 모여 간소하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선 등 제수용품을 찾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전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죠.”

22일 오전 찾은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에서 옥돔 등 생선을 판매하는 한 상인의 말이다.

추석 명절 전 마지막 장이 열린 이날 오일시장에는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도 연중 손꼽히는 대목인 만큼 상인들은 과일과 생선, 채소 등 명절 성수품을 진열해놓고 “싸게 드릴게요”, “사가세요”라며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과일은 품목과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4~5개에 1만원에 판매하는 곳이 많았고, 배는 1개 4000원, 3개 1만원 수준이었다. 하우스감귤은 상품 기준 kg당 8000~1만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반면 채소류는 비교적 가격 부담이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애호박

과 무는 각각 1개에 3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많아 지난해 이맘때보다 500원가량 비쌌다.

포를 떠 전으로 부쳐 차례상에 올리는 동태는 마리당 8000~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예전 명절 대목에는 점포 앞에서 포를 뜨는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이날은 대기 행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산 옥돔은 1kg(3마리) 기준 8

만~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3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산 옥돔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수입산만 판매하는 점포도 눈에 띄었다. 중국산 옥돔은 1kg(3마리)에 5만~6만원 수준으로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수입산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제수용품을 사러 왔다는 50대 소비자는 “옥돔은 차례상에 국산을 올리면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3마리에 10만5000원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수입산을 샀다”고 했다. 또 다른 60대 소비자는 “올해 추석부터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기로 해

옥돔 한 마리와 과일 정도만 구입하려고 찾았다”고 했다.

이날 오일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예전 같지 않은 손님 발길에서부터 달라진 추석 풍경이 피부로 느껴진다면 입을 모았다.

한 상인은 “명절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장을 크게 보는 손님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된다”며 “명절 직전이던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가정이나 산소에서 각자 차례를 지내는 등 명절 풍속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시장에서도 예전과 같은 명절 대목 분위기는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22일 열린 추석 전 마지막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강희만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제주지방법검찰청은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날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과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보복 목적 뿐만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 한 의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의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박소정기자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횡령 전직 어촌계장 송치

서귀포해경, 횡령 등 혐의

제주에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전직 서귀포시 모 어촌계장 7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

월까지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1억여원을 부당하게 횡령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어촌계 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무장 30대 B씨도 함께 송치됐다. 박소정기자

마트노조 “신제주 이마트점, 노동탄압 중단을” 인력충원·근로시간 조정 요구하며 3주간 피켓시위

이마트 신제주점 노동자들이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에서 노동조합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노조)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며 3주 넘게 매장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마트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트는 노조 활동 방해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노조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양유리기자

추석 당일 제주시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

서귀포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위해 의무휴업일 조정

제주시는 관련 신청 없어 26일 의무휴업일 쉴 수 있어

서귀포시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에 쉴 수 있으나, 제주시지역 근로자는 정상 근무한다. 전자는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후자는 관련 신청이 없어 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에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와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 서귀포서흥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추석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대규모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현행 4번째 토요일인 26일에서 추석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에 대해 서귀포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고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제주시 대형마트 3개소(이마트 탐동점·신제주점, 롯데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개소(노브랜드 아라점·노형점·외도점, 롯데슈퍼 삼양점)는 추석 당일 정상 영업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9월 추석 명절날 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주시지역 근로자의 민원이 올라왔으나 무산됐다.

민원인은 서귀포시지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명절 당일을 휴무일로 변경해 쉬고 있다며 제주시만 추석 당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없었고, 행정 권한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 고시 등 최소한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소정기자

해산물 채취하러 나선 70대 테트라포드서 숨진 채 발견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섰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9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 인근 테트라포드에

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전날 오후 8시 49분쯤 “아침에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간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과정에서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한가위 고객감사 大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① 50%특별할인 ②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샬송을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